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박대신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2년 (불기 2566년) 1월 3일 (월)

<http://dongguk.or.kr>

제258호

동국인은 사회의 리더로서 누리를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 서울캠퍼스 팔정도 불상과 명진관 (사진 김찬욱 본회 사무국장)

코로나 19 확진은 계속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갇히고 닫혔습니다.
일상이 지치고, 인생 설계 또한 차질을 빚습니다. 이런 인류적 재앙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생긴 업보입니다.
발전과 번영을 위한 탐욕적 개발의 무한질주가 오늘의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매일수룩 겸허한 성찰의 자세로 동국인의 지성을 돋보이게 할 때입니다.
사회의 리더로서 배려와 헌신의 이타행으로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누리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신년의 소망이지만 동문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동문 개인마다 추진하는 일들이 차질없이 성취되도록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동국인은 늘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평화 가운데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며,
세상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 신년사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동창회가 되자”



35만 동국인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에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쪼록 동문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임인년 새해, 검은 호랑이의 좋은 기운으로 코로나를 물리치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총동창회를 이끌어온 저로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동문 여러분들과 하루빨리 반가운 얼굴로 마주하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동창회는 새로운 100년의 비전체계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와 발전으로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찾아가는 동창회의 일환으로 전국 지부와 지회를 돌아다니면서 동문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동문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력 있는 동문들로 집행부를 구성하여 뉴 노멀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활동으로 모교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동문 유대관계의 구심적 역할을 선도하면서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의 디딤돌을 차곡차곡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교와는 주기적으로 대화하면서 대학 경쟁력 향상에 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동문들의 염원인 동창회관과 학교법인 개방이사 파송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교는 2021년 대학평가에서 처음으로 9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윤성이 총장을 비롯해 대학 교수진과 교직원 그리고 재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단과 법인의 후원과 35만 동문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20위에 머문 것은 우리 동창회가 모교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부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미래 동창회의 주역으로 등장할 재학생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 기부하는 '동국 장학위원'을 모집하면서 2031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장학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동국사랑 나눔운동에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종단과 법인 그리고 대학과 총동창회는 빛나는 동국을 위해 사위일체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합니다.

2022년 총동창회는 찾아가는 동창회, 참여하는 동창회, 역동적인 동창회, 상생하는 동창회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창회를 캐치프레이즈로 35만 동문들과 함께 소통 공감하면서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를 위해 아름다운 동행으로 빛나는 동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역대 총동창회장 정책 간담회



▲ 왼쪽부터 전영화, 송석환, 전순표, 박대신, 원용선 회장.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10월18일 역대 회장들과의 오찬 자리를 마련하고 총동창회 변화와 발전에 관한 정책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역대 회장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로운 100년 비전체계에 따라 총동창회를 이끌고 있는 박대신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동창회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환담을 나눴다. 역대 회장으로는 원용선(23대), 전순표(24대), 송석환(25대), 전영화(26, 27대) 前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권노갑(20~21대), 류주형(21~23대) 前 회장 등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모교, 동문 초청 대학현황 설명



▲ 간담회 참석자들이 모교 본관 앞에서 동국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모교 윤성이 총장은 12월29일 동국가족 초청 오찬을 갖고 2021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동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성이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가 처음 대학평가 9위에 오른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과 전원 취업을 목표로 활동하는 건학위원회의 역할과 동국발전을 위한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소개하고 모교가 TOP5를 향해 3대 사립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은 모교 개교기념일(5월8일)까지 기부와 권선으로

장학금을 모금하는 캠페인이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또한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모교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교와 총동창회가 합심하자”며 화답했다. 동국가족 초청 오찬행사에는 박대신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정인악(화학55), 송석구(철학58), 원용선(영문59), 장근도(경제59), 홍파스님(불교63), 김진문(경영64), 송석환(농경64), 전영화(경행65), 성영석(경영67), 김환배(연료68), 민흥기(법학68), 나경미(정의70) 등 동문들이 참석했다.

2021-2차 상임위원회의 개최



▲ 제2차 상임위원회가 오랫동안 열렸다.

총동창회는 12월1일 제29대 2차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동창회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정부지침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강행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동국인의

밤 행사를 취소했다. 이어 장학위원 제도 운영, 찾아가는 동창회, 모교와의 파트너십, 역대 회장 초청행사 등 총동창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한 후 상임위원으로 참석한 모교 기획부총장 종호스님과 2021 대학평가 9위를 달성한 모교가 TOP5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장학위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동문들이 TOP5 달성을 응원하자”고 강조하면서 2차 상임위원회의를 마무리 했다.

2021 중앙일보 전국 대학평가 9위로 사상 첫 톱 10 진입

근래 17위에서 8계단 상승 ... 연구 경쟁력 및 학생 취·창업 분야 두각

우리 모교(총장 윤성이)가 중앙일보가 실시한 각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2004년 평가 시작 이래 처음으로 9위에 올랐다. 중앙일보는 지난 11월 10일자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 특집 기사에서 "동국대가 2019년 평가 때(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미 실시)보다 무려 8계단이나 뛰어오른 역대 최고 순위인 9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모교는 ▲학생교육 부문 5위(이전 8위) ▲교수연구 12위(이전 27위) ▲평판도 13위(이전 16위) ▲교육여건 26위(이전 22위)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른 순위 상승을 보이는 등 각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내 '톱9'에 진입했다.

2016년부터 4년간 17위에 머물렀던 모교는 지난 2019년 시작한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났다. 중앙일 보도 연구 경쟁력 및 학생 취·창업 분야의 강점을 높이 평가하며 "동국대(서울)는 2010년 이후 17위 안팎에 머물러왔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연구부문 순위 상승과 학생 취·창업을 바탕으로 처음 톱10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연구부문 비중은 32%를 차지한다. 모교는 교수연구 부문에서 이전보다 순위가 15계단 크게 상승했고, 이는 종합순위 상승으로 이어진



견인차가 됐다. 즉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11위 ▲과학기술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 27위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14위 ▲교수당 교내연구비 26위 등 모든 세부지표에서 고르게 약진하며 12위에 올랐다. 이공계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높인 대학들이 1~10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생교육 부문이다. 이 부문은 취업이나 창업의 양과 질, 현장실습이나 창업교육과 같은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중앙일보는 올해 평가에서 창업 지원금이나 기업 수와 같은 학생 창업의 양적 성과 뿐 아니라

기업당 매출액, 고용인원, 창업 지원인력 등 질적인 수준도 함께 평가했다.

모교는 80점 만점에 54.78점을 획득해 5위를 기록했다. ▲한양대(서울) 62.74점 ▲성균관대 56.71점 ▲연세대(서울) 56.56점 ▲고려대(서울) 56.00점에 이어 모교는 5위를 차지했다. 순수취업률과 유지취업률 모두 10위 안에 들며, 취업의 '양과 질' 모두 우수한 대학임을 입증했다. 순수취업률은 71.44%로 10위, 유지취업률은 89.70%로 8위를 차지했다.

윤성이 총장은 "동국대가 '교육보국'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기본'에 충실했다. 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체질을 개선했다.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4월 출범한 건학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올해(2021년)를 제2건학의 원년으로 삼고 'Energize Dongguk'을 넘어서, 'Globalize Dongguk'을 향해 심 없이 역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한국최초의 대학평가로 매년 가을에 대학별 순위 등을 발표하고 있다.

순위	대학명	점수	순위	대학명	점수
1	서울대	232	21	세종대	136
2	연세대(서울)	220	21	전남대	136
3	한양대(서울)	207	23	국민대	134
4	성균관대	204	24	인천대	132
5	고려대(서울)	199	25	숙명여대	130
6	이화여대	167	26	충남대	126
7	경희대	166	27	가천대	122
8	중앙대	164	27	송실대	122
9	동국대(서울)	162	29	제주대	117
10	한양대(ERICA)	160	29	충북대	117
11	건국대(서울)	159	31	홍익대	115
11	서울시립대	159	32	광운대	113
11	아주대	159	33	단국대	110
14	서강대	157	34	부경대	109
15	부산대	147	34	울산대	109
15	인하대	147	36	강원대	107
17	서울과학기술대	146	37	순천향대	104
18	한국의국여대	145	38	경상국립대	102
19	경북대	143	39	경기대	101
20	전북대	137	39	영남대	101

경주캠퍼스 · 총동창회 · 직할경주동창회 상호협력 방안 논의

“소중한 인연 동국과 함께” ... 캠퍼스 현황과 비전 공유



▲ 경주캠퍼스 · 총동창회 · 직할경주동창회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경주캠퍼스는 11월17일 오후 6시 경주 코모도호텔 화랑홀에서 총동창회 및 직할경주동창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중한 인연 동국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주캠퍼스의 현황과 비전을 동창회와 공유하고 함께 대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원종일 경주캠퍼스 기획처장은 이날 경주캠퍼스의 성과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교육부 LINC+사업, 경북도 산학협력지원사업 연속 선정과 간호대학 신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등 대학 성과

를 소개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의 대학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대학과 동창회가 모교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발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이영경 경주캠퍼스총장은 "여러 상황 속에서도 경주캠퍼스는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경주캠퍼스 현황을 동창회와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동창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박대신 회장(왼쪽)은 주낙영 경주시장(오른쪽)을 만나 경주시 차원의 대학발전 협조를 요청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35만 동문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린다. 동창회가 학교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 소통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영경 경주캠퍼스 총장과 박대신 총동창회장, 조덕형 직할경주동창회장, 최규철 前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등 학교와 동창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박대신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주낙영 경주시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통해

경주캠퍼스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설과 경주시 상생협력사업 제안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동창회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에서 동국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경주병원에 의료장비 지원과 주차장 시설 보수 예산을 확보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18일에는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동국대 경주캠퍼스 지역경제 기여도 및 지역상생 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정외과 75년’ 화보집 만든다

준비위원장 고용규 동창회장 인터뷰



- 반갑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 올해 ‘사진으로 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75년’ (가칭)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1947년 5월 개설된 정치외교학과가 올해로 75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각계 각층에 국가사회 동량들을 많이 배출했고, 특히 한국정치에 큰 인물들을 배출한 정치인의 산실로서 전통과 자부심이 남다른데. 그럼에도 성과를 기억하고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료 하나 없다는게 안타까웠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만 가치가 있지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에 우리 학과 75주년을 기념하는 화보집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2017년 정치외교동창회장직을 인계받으면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과 함께 우리들의 발자취를 남김으로써 후배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후배들이 새로운 전통을 심어가는 향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과와 함께 출발한 경제학과가 70년사를 펴냈고,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등도 오래전에 비슷한 책들을 펴낸데 대한 자각지심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로 대면 동창회가 어려울 때 뭔가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야겠다는 책임도 느꼈지요”

- 책을 엮으려면 자료는 물론이고 인력이나 재원도 뒤따를텐데요?

“우선 자료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죠. 그래서 동창회보를 통해 정외과 동문과 은사는 물론 다른 학과 동문들께서 소장한 여러 자료를 최대한 협조받을 생각입니다. 더불어 졸업앨범, 모교 홍보실이나 동대신문사 등에도 사진자료가 있는지 꼼꼼히 챙기려고 합니다. 금명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 예정대로라면 언제쯤 출간되는지

“목표는 올해 10월까지입니다. 부지런히 서두를 겁니다. 우리 동국대의 자랑이기도 한 정외과에 학과 구분없이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정치외교학과 동창회장 고용규 (010-5442-7135)
경기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53-1 (주)동우들 대표이사

남가주동문회 송년모임

“내년엔 더 자주 만남시다”



남가주총동문회(회장 박중원, 81무역)는 12월 11일 DULA(동국대 LA캠퍼스) 로터스홀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원

근의 많은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서로 간의 안부와 덕담, 모교 소식을 나누며 동국사랑을 재확인했다. 한편 회원들은 “내년엔 더 자주 만남시다”라는 석별 인사로 아쉬움을 달랬다.

자랑스러운 석림동문인상 시상

종호스님 · 묘주스님 · 정목스님 등 3명



석림동문회(회장 성우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가 12월1일 서울캠퍼스 정각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1년 자랑스러운 석림동문인상’을 시상했다. 석림동문인상은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스님과 동국대 전 정각원장 묘주스님, 유나방송 운영자 정목스님 등 3명에게 수여됐다.

또 이 자리에서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석림동문회 장학기금 3,000만원을 정기탁해 석림동문회 발전을 기원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동문회장 성우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스님, 동국대 감사원명스님을 비롯해 동문 스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다.

인도철학과 초대 회장에 선일스님



인도철학과 동문회가 12월11일 모교 정각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에 선일스님(73학번, 인천 원명사 회주스님, 조계종 균종 특별 교구장)을 선출했다. 만장일치로 추대된 선일스님은 “앞으로 각계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을 하나로 모으고 동문회의 체계를 갖추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모교 불교학술원장 자광스님(모교법인 전 이사장)과 조계종 원로의원 법타스님, 진각종 종의회 의장 덕일 정사, 정병조 전 금강대 총장, 모교 불교대학장 황순일 교수 등 1기인 64학번부터 각 기수별 동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동문회 창립은 인도철학회 학회장인 위덕대 이태승 교수가 실무를 맡았고, 모교 불교학술원장 자광스님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동대신문 동인회장에 최종홍 동문



동대신문사 기자 출신 모임인 동대신문동인회(회장 심규박, 모교 응용통계학과 교수)는 신임 회장에 최종홍(국문 81, BTN 보도본부장) 동문을 선출했다고 12월15일 밝혔

다. 이번 선출은 코로나 사태로 모임을 가질 수 없어 유선으로 선후배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했다. 신임 최 회장은 문화일보 편집부국장 등으로 30여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동대신문동인회 회원은 언론인, 대학 총장과 교수, 문인, 국회의원 등으로 각계각층에서 활약해오고 있으며, 회원은 3백여명에 이른다.

불교문화대학원 회장에 이재동 동문



이 회장은 “2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 온 대학원 동문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제8대 회장을 역임한 부산 천불정사 주지 고담스님에 이어 제9대 회장을 맡아 총동문회 및 불교문화대학원의 발전과 전법의 길을 염원했다. 이 회장은 기업 경영의 바쁜 일정 중에도 소리 없이 제방의 스님들과 교류하며 수행과 자비 나눔을 꾸준히 이어온 신심 깊은 불자이다.

장경웅 장학위원 위촉장 수여식

동창회 대물림 장학금으로 1천만원 기탁



60여년전 동창회 장학금 1만원이 1천만원 대물림으로 돌아왔다.

총동창회는 11월16일 장경웅(상학61, 사진 오른쪽) 동문에게 장학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장경웅 동문은 동국장학위원 참여 캠페인을 보고 재학 당시 총동창회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학업에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1천만원 기부를

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장경웅 동문은 1963년과 1964년 동창회 장학금을 5천원씩 두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동창회는 2022년까지 동국장학위원 500명을 모집하기 위해 총동창회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대물림 장학금 권유 서신을 보내는 등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영과 위해 써달라 ... 1억원 익명 기부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동문이 10월 26일 모교 총장실을 방문, 윤성이 총장에게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현재 한 사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동문은 학창 시절 만난 학과 후배와 부부의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

주례를 선 학과 은사와 깊은 인연을 이어왔고, 은사의 권유로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1억의 기부금은 배우자의 이름을 딴 기금으로 명명되어, 경영학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동문기업인들 익명으로 1억원 기부

익명의 동문 기업인들이 12월7일 모교를 찾아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익명을 요청한 이들의 기부금 전액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모교 동국대에서 이영달 은사의 창업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학교 창업지원센

터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시작한 이들은 현재 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학창 시절부터 이영달 은사와 일과 인생의 멘토와 멘티 관계를 이어왔고, 은사의 권유와 모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진식고시장학금 5,100만원 전달

최진식(무역77, (주)SIMPAC회장) 동문이 12월16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 최진식고시장학금 5,10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 행정·입법고시 1,2차 및 최종 합격한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장학금은 1차 시험에 합격한 12명의 학생들에게 각 300만원씩 전달되었으며, 1천5백만원은 고시반 운영지원금으로 전달되었다. 지난 2006년부터 최진식고시장학금으로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17억여원에 달한다.

한의대 3기, 8천3백만원 기탁

한외과대학 3기동기회(회장 윤종원)가 12월4일 경주 보문단지 더케이경주호텔에서 “동국대학교 한외과대학 입학 40주년 기념 동국한의의 날”을 개최하고 한외과대학 발전기금 8천3백만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이날 한외과대학 외래교수회도 일산캠퍼스 한외과대학 건립기금으로

5,300만원을 전달하여 총 1억3천6백만원의 기금이 모금됐다.

기념식은 환영사와 축사, 자랑스러운 동문에 대한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기금전달식, 한외과대학 40주년 기념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김용길 법학과동창회장 1억원 기탁



김용길(법학 61, 제주 골드윈 호텔앤스위트 대표)동문이 법과대학기금으로 11월 15일 1억원을 윤성이 총장에게 전달했다.

모교와 학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김동문은 지난 1992년부터 기부를 시작해

이번 기부 외에도 지금까지 총 1억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교에 전달했다. 오랫동안 법과대학 총동창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꾸준히 후배사랑 장학금을 모금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김동문은 “학창시절 신입생 때부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모교로부터 많은 수혜를 입었다. 동문이자 선배로서 학과를 위해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운스님, 10년간 1억원 약정



해운스님(불교 11, 포항 원법사 장학회 이사장)이 11월18일 본관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재학생 10명에게 100만원씩 1000만원

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매년 1000만원씩 1억원의 장학기금을 보시하기로 약정했다.

원법사장학회는 포항 원법사 소속의 장학회로 2008년 지역 초·중학생 장학금 지원을 계기로 설립됐다. 이후 사부대중의 십시일반 동참으로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경주캠퍼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470여명에게 2억5000만원의 장학활동을 펼쳤다.

ROTC, 울트라장학금 수여



ROTC총동문회(회장 윤재민, 사학81) 로 1억5천2백만원을 지급했다.

는 12월22일 울트라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2021년 1학기 및 2학기에 선발된 장학생 20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했다.

울트라장학금은 2009년부터 꾸준히 기금을 조성해 현재까지 누적액 3억1천여만원을 모금했으며 지금까지 총 152명에게 장학금으

불교학과 장학금 전달식

불교학과동문회(회장 박순)는 12월8일 모교 정각원 법당에서 불교학과 학부생 2명, 대학원생 1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은 각 70만원씩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는 코로나로 인해 박순 회장과 하준생 감사, 박영동 사무총장 등 소수 임원만 참석했다.

건축공학부 교육지원비 1천만원

건축공학부동문회(회장 김승욱, 79학번, (주)기림건축사사무소 대표)가 12월2일 모교를 방문해 윤성이 총장에게 건축공학부 학생들의 교육 지원에 써달라며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승욱 회장과 함께

임명구 (주)스틸콘 사장(건축공학 89)이 건축공학부 동문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모교에서는 윤성이 총장과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이재섭 건축공학부 교수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경주캠 '동경가선' 장학금 수여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서 '현직교사동문회(동경가선)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인정 현직교사 동

문회장을 비롯한 동문 현직교사, 가정교육과 재학생, 가정교육과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5명의 재학생들에게 총 2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제주 풍광만큼 멋진 동창회 다짐

회장 정한중 · 사무국장 구슬환 동문 위촉장 수여



총동창회는 제주지부를 재결성하고자 1년여 동안 구심점을 만드는 준비작업 끝에 정한중(임학80, 사진 왼쪽) 동문이 제주지부 회장직을, 구슬환(경행91) 동문이 사무국장직을 수락함에 따라 11월4일 제주시 돈풍년 식당에서 첫 만남을 갖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의 멋진 풍광만큼 멋진 동창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한중 제주지부장은 “총동창회에서 멀리 제주까지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위촉장을 받으니 동국의 DNA가 살아나는 느낌에 감격스럽다. 제주지

부를 꼭 활성화시켜서 정식으로 초청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응렬 경찰사법대학장의 도움으로 제주 경찰청에 근무하는 오충익(경행86), 박현규(경행88), 김완기(경행92), 이창열(경행94) 동문을 비롯해 윤석순(정의71), 강행근(통계81), 김경희(체교83), 정은선(전자계산85) 동문 등이 참석해 제주지부 부활을 축하하며 총동창회 지나온 100년의 역사와 새로운 100년의 비전체계 영상을 감상한 후 아름다운 동행으로 빛나는 동국을 만들자는 다짐으로 제주의 밤을 동국으로 물들였다.

수원지부 ‘명성 회복’ 한 목소리

젊은 동문 참여 위해 함께 뛰어아



총동창회는 11월12일 수원지부를 방문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일정 조율을 거듭하다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여서 최성호(법학81) 수원지부 회장을 대신해서 김용구(농경70) 전회장이 박대신 총동창회장 일행을 맞이했다. 박대신 회장은 이날 참석한 전영선(식공69), 박봉준(경제77), 이석태(국문77), 김용기(경제79), 곽문수(사회84), 채명기(산공86) 등 동문 한사람 한사람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동안 단합이 잘 되었던 수원지부가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안타깝다. 지부 지회가 활성화 되어야 총동창회 역량도 강화된

다. 수원지부는 역사가 깊고 활성화 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거라 생각한다”면서 격려했다.

김용구 전회장은 “한층 젊어진 수원지부가 되도록 젊은 동문들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은 “수원시도 행정구역이 확장된 만큼 외부에서 유입된 동문들이 많을거라 생각한다. 기존 동문들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동문들을 찾아 친화력 있게 다가서자”면서 “앞으로 사무국장으로서 수원지부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고 분위기를 띄우며 화답했다.

창창한 남산기슭 우리 동대는 ... ‘따로 또 같이’ 남산 걷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적모임 제한으로 오랫동안 모임이 어렵게 되자 “따로 또 같이” 남산 걷기를 하면서 소모임 단위별로 탈출구를 찾고 있다. 입학30주년 기념 리멤버 등산대회는 2019년까지 열렸으나 현재는 코로나로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소모임 단위별로 남산 걷기를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 모임을 갖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모임방식으로 자리를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이자 모교의 상징으로 해발 265m로서 본래 이름은 인경산이었으나 조선 태조가 1394년 풍수지리에 의해 도읍지를 개성에서 서울로 옮겨 온 뒤 남쪽에 있는 산이므로 남산으로 지칭되었다. 나라의 평안을 비는 신당을 세워 목백대왕 산신을 모시고 있어 목백산으로도 불렸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로가 다양하지만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로 나와 장충단 공원에서 모여 모교 정문 옆으로 이어진 산책로를 이용하거나 상록원 뒤로 이어진 산책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모교로 하산하여 상록원에서 식사하는 일반인도 꽤 많이 있었다.

경찰행정학과동문회
경찰행정학과동문회(회장 최응렬, 모교 경찰사법대학장)는 2022년 경찰행정학과 창설 60주년을 앞두고 11월13일 모교 불상 앞에서 100여명이 모여 남산 걷기로 단합을 다졌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들과 참석한 동문들도 눈에 띄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오랫동안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창설 60주년 행사 준비에 대한 의견도 교

환했다.

행정대학원 동행산악회
행정대학원 동행산악회(회장 홍종표)는 11월14일 장충단공원에서 남측 순환로를 따라 남산타워까지 오른 후 북측 순환로를 따라 원점회귀하며 만추의 남산을 즐겼다. 매월 둘째주 일요일 정기산행을 갖고 있는 동행산악회는 2021년을 보내면서 더 많은 동문들과 함께 하기 위해 11월 산행지로 남산을 택했으며, 50여명의 동문들이 함께 했다.

83학번동기회 남산 성곽길 걷기
83학번 송인모(경행83) 회장은 일반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과 친목을 다지는 남산 걷기를 제안해 호응을 받았다. 83학번 동기회 20여명은 11월6일 승

례문에서 모여 성곽을 따라 장충단공원까지 남산 길을 걸으면서 가을 정취를 즐겼다. 특히 민경준(정의83) 동기의 한양도성 역사와 성곽 축조방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곁들이며 오랫동안 모임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다.

ROTC19기 모임
ROTC19기(회장 박준국, 공경77) 동기회는 11월1일 20명이 장충단공원에서 모여 삼삼오오 산책로를 따라 답소를 나누며 팔각정까지 오른 후 승례문 방면으로 하산하여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정기총회를 대신했다. 남산 길을 걷는 동안 차기회장에 대한 안건을 논의해 배상용(화공77) 동문을 차기회장으로 확정했다.



▲ 남산 팔각정 앞에서 단합을 과시하는 경찰행정학과동문회.



▲ 동행산악회가 만추의 남산을 찾았다.

총동창회 20·21대 회장 권노갑 고문

“일류 교수 모셔야 ‘명문’... 투자 아끼지 말아야”

‘DJ 분신’으로 살아온 반세기가

가장 큰 영광이자 보람

동창회는 화해와 통합의 정신 살리길

92세. 아무리 보아도 60대 후반쯤으로나 보이는데 1930년생이라고 하신다. 건강미 넘치는 잘생긴 얼굴이다. 무려 두시간 동안 진행되는 인터뷰에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깨끗하게 의자에 앉아 묻는 질문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답한다. 설명이 길어졌지만 바로 권노갑 전 총동창회장(경제과 49학번)의 모습이다. 그를 흔히 ‘영원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이자 ‘경호실장’, ‘동교동계의 맏형’, ‘DJ기념사업회이사장’ 등으로 부른다. 특히 ‘상임고문’을 많이 지내 ‘6선 상임고문’이란 말도 회자된다.

호칭할 명칭이 하도 많아서 “무슨 직함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느냐”고 묻자 널리 알려진 ‘권 고문’이 아니라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또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명예이사장’으로 불러주기를 바란다. DJ와 일생을 함께 한 세월을 ‘훈장’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이자 단면이다. 그가 원하는 대로 직함을 ‘이사장’으로 호칭하기로 했다. 모교 총장실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는 박대신 총동창회장, 윤성이 모교 총장,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신관호 총동창회 편집주간이 동석했다. 그에 대한 예우가 깡뚫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 모교를 진학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부모님이 독실한 불자입니다. 내 이름을 스님이 지어 주셨어요. 목포 시내 사찰에 있는 룸비니유치원을 다녔으니 뺏속까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상업학교(당시 6년제)를 졸업하면서 취직보다 대학 진학 계획을 세웠는데 동국대학 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그는 1949년 동국대 경제과에 입학했다. 당시 캠퍼스는 혜화동과 필동에 분산돼 있었다. 경제과를 지망한 것은 상업학교 출신이어서 자연스럽게 지망한 것인데, 영어를 잘해서 외교관이 될 생각으로 영문과를 복수 전공했다. 경제과 수업은 혜화동 캠퍼스에서, 영어 수업은 필동 캠퍼스에서 들었다. 영어를 잘한 인연으로 6.25가 터졌을 때, 부산 미군기지사령부에서 미군 간부 통역관으로 3년여 근무했다.

- 대학 다니던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당시 우리 대학에는 학계의 석학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경제원론’을 강의했던 신태환 박사를 비롯해 양주동 박사, 최호진, 고병익 박사 등이 계셨습니다. 학계의 권위자가 동국대에 포진했던 것은 월급이 서울대학이나 연·고대에 비해 서너 배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태환 교수에게 ‘경제원론’을 배웠는데, 과목이 좀 어렵다고 말하자 ‘경제원론’을 제대로 알려면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방정식, 시그마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자신있는 영문과 강의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국문과 양주동 박사 강의도 들었고요. 당시는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 수업 들으러 동국대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서울대학교 연·고대를 찾아갔고요. 그때는 이렇게 대학간에 교류가 많았습니다.”

-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동기를 소개해주세요.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이죠. DJ는 나의 목포 북교국민학교, 목포상업학교 4년 선배입니다. 내가 목포상고 1학년 입학하니 그는 5학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우상이었으니 자연스럽게 따랐지요. 그런데 1961년 장면 정권 시절, 그가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요. 그동안 두 번 낙선했으니 안타까워서 돕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사직을 그만두고 인제에 올라가 수행원 겸 운동원으로 활동했지요. 천신만고 끝에 당선이 됐는데, 당선증을 받은 3일 만에 5.16군사쿠데타가 났어요. 국회의원 선서도 못하고 장면 박사와 함께 反쿠데타 세력으로 몰려 구속되었지요. 풀려나긴 했으나 DJ는 정치규제법에 묶여 2년 동안 활동할 수 없었어요. 이런 그를 떠날 수가 없었지요.”

6대 국회의원 선거(1963.11)때, 규제가 풀린 DJ는 인제를 포기하고 서울 마포구에서 출마를 준비했다. 이때 권 이사장이 “형님, 목포로 갑시다”하고 목포 출마를 권유했다. DJ는 낙선했던 고향인지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목포 여론이 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전달한 뒤 목포에 출마토록 권해 천신만고 끝에 당선됐다. ‘천신만고’라고 말한 것은 “박정희가 DJ만은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특명을 내렸기 때문이다. 처절한 사투 끝에 당선된 것이 오늘날 ‘DJ와 권노갑’ 정치인생의 시발점이었다.

그 다음 지나간 ‘고난의 시절’ 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다. 유신정권 때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때 구속돼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했다.

-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DJ의 위대한 점은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자신을 탄압했고 죽이려 했던 모든 정적들을 용서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것이 DJ정신이라는 것이다. 권 이사장 역시 그를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들을 다 용서했다고 한다. 그중에는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숨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연민을 느낀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자신을 가혹하게 탄압했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1999년에 맡았다고 추후 전화로 알려졌다. 간디의 말대로 “약한 자는 절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 좌우명은 어떤 것입니까.

정직, 겸손, 올바른 생활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이메일 답변을 해왔다.

“和而不同이 좌우명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필요할 때만 진지한 척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해야 합니다.”

- 총동창회에 바라신 점이 있다면?

“동창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상을 보인다면 동창들의 동참의식이 떨어지지요. 모교 발전의 3대 축의 하나가 총동창회인데, 단합하고 힘을 모아야 해요.”

한때 동창회 갈등 상황을 지적하시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박대신 총동창회장이 이연택 전 회장 등을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며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살리겠다고 화답했다.

- 모교에 바라신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모교는 우리가 대학 다니던 때처럼 좋은 교수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수진이 좋으면 우수 학생들이 몰려들어요. 일류 교수 모셔오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권 이사장은 40여년만인 1997년 모교 경제과에 복학해 마지막 2학기 수업을 마치고 졸업했다. 그후 한국의대에서 석사학위(영어영문학)를 받고, 지금은 모교에서 영문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지도교수가 김애주 영문과 교수이자 대외협력처장이다. 권 이사장은 경주캠퍼스 입구의 경주대교 건설을 위해 경상북도에 예산을 배정해 지원한 일 등 모교를 위해 봉사했다.

부인 박현숙 여사와의 사이에 1녀 1남을 두었다. 박 여사는 경기여고, 이화여대,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FIT) in New York 출신에, 아버지가 삼영인쇄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서울 명문가 출신이다. 박 여사의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장인이 잘 봐주어서 결혼했는데, 평생 고생만 시켰다고 안타까워했다. 맏딸 수연(52)씨는 조지워싱턴대, 뉴욕대학원, 동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아들 정민(51)씨는 미국 시애틀의 University of Washington 졸업 후 GE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이계홍 <국문65·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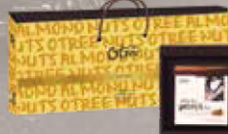
Otree
FOOD VILLAGE

ccm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매일 매일 챙겨 먹는 건강한 습관
(주)오트리푸드빌리지 영양간식

오트리푸드빌리지
B2B 선물세트

설, 추석, 기업행사,
거래처 선물엔
오트리푸드빌리지
선물 세트



1987 견과세트 1호
고메넛츠(10입)+베리넛츠(10입)+위아더넛츠(10입)
45,000원 **31,000원**



프리미엄 선물세트 1호
고메넛츠 25g(10입) 3세트
60,000원 **35,200원**



오트리 선물세트 3호
베리넛츠(10입) 4세트 +베리믹스(10입) 2세트
75,000원 **48,800원**

특판 문의: 원종혁 부장 Tel. 031-797-7262 C.P. 010-9342-1870 E-mail. momcook21@naver.com

Otree
FOODS

과일 가공품 원료 전문 기업

(주)오트리푸드는 일년 365일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건강한 자연 원재료를 사용하는
'자연 원물 우선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리플젼과 본 마망 젼을 선보인
유럽 No.1 과일가공품 기업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고의
크랜베리 전문 기업



미국 베리류 과일켄 시장 1위
고품질의 건강한 베리 원료 기업



오트리푸드의 건조, 냉동
과일 전문 브랜드



전 세계 푸룬시장의 67%를
점유한 미국의 푸룬 브랜드

제품 문의: Tel. 02-412-4753 E-mail. info@otreefoods.com

모교 대외협력처장 김애주 교수

“모교 발전기금 모금 위해 태어난 사람”

불교가 기금 모으는 자산

2021년도 입금액 100억원 돌파

올해 ‘108배 기부 릴레이’ 전념

모교 김애주(영문학과 76학번) 영문과 교수 겸 대외협력처장은 마치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인다. 발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전국 어디건 찾아나서고, 별별 기금 네이밍을 붙여 기탁자를 모으고 있다.

김 처장이 내미는 명함도 일반 명함과는 확연히 다르다. 접이식 명함의 안 페이지에는 ‘동국사랑 1·1·1 캠페인 참여 신청서’가 적혀있고 성명, 생년월일, 구좌금액, 자동이체,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주소에 동문·스님·불자·학부모인지 신분을 적는 칸이 있다. 상대방을 만나면 이것부터 내미는 것인데, 그만큼 그의 기금 모금 열의는 빈틈없어 보인다.

발전기금모금 안내 책자에는 △로터스관 건립기금 △대각전 만불봉안 기금에 이어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장학기금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기금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기금 △사회혁신을 주도할 특목기금 등 항목이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강당 좌석 기부 캠페인까지 벌이는데 S석은 200만원, A석 100만원, B석 50만원씩 기부금액을 정해 기부자를 받고 있다. ‘동국대학교 기념 와인’을 제작해 와인 구매 시 일부 금액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상품 개발도 해놓고 시중 판매하고 있다.

현금기부, 현물기부, 부동산기부, 유산기부, 해외기부 등 항목도 있다. 그와 한번 인사를 나누면 기금 하나 약정하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친절이 몸에 밴 열의와 적극성은 어떤 누구도 구좌 하나쯤은 들어주어야 할 품성을 지녔다. 실제로 동문인 필자에게도 사양을 하는데도 한사코 ‘동국대학교 기념 와인’ 세트를 선물로 주어 약정을 안하면 미안하게 할 정도로 만들어버린다.

“그동안 모금 성과는 어떻습니까?”하고 묻자 당장 답이 돌아왔다.

“우리 대학은 발전기금을 확보하는 데 남다른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계가 그 배경이지요. 불교가 가르치는 이타행 그대로 스님들과 불자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모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불자라는 인연으로 흔쾌히 발전기금을 내놓은 분들이 많다는 데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양대 출신의 불자 이근창 명예박사를 비롯해 모금 사례들을 실타래처럼 풀어낸다.

김 대외협력처장을 만나기 위해 모교를 찾은 것은 지난 가을의 초입이다. 그를 만나자마자 부터 푹부러진 어휘 구사와 친밀감, 빛나는 안광, 카리스마 넘치는 자신감이 보통 열정의 인물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조계종 산하의 불교여성개발원장으로 복무(2011-12년)했던 경력이 모금운동을 펼치는 데 큰 자산이 되었어요. 엘리트 여성 회원과의 네트워크 확보, 여성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봉사를 통해 폭넓은 교류를 하게 된 계기였지요.”

한국 불교는 물질·양적 측면에서 여성 불자의 힘이 크다. 이 점을 살펴보고 윤성이 총장이 대외협력처장직을 맡긴 것 같다.

김 처장이 모금한 모교 발전기금은 취임해인 2019년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입금액 기준으로 약 185억 7천여만원이다. 2020회계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89억원(현물기부 포함)을 모금했다. 이 액수는 중앙대 70억원, 건국대 38억원, 서강대 34억원 등에 비하면 대단히 선전한 것이다. 이는 국내 사립대학 중 8번째에 해당하는 모금액이라고 한다.

올해 들어서는 총 100억원이 입금되었다. 코로나 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선포 나서고 있다고 전한다. 내년에도 이러한 동국사랑이 이어져 동국발전전을 위한 많은 기금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불교가 우리 학교의 든직한 자원이라는 것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는데, 지금도 불자들의 유산 기부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금과 부동산을 기탁하는데 홀로 살아온 불자는 물론, 자식들이 있어도 물려주지 않고 공익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학에 기부하고 가겠다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살림이 넉넉한 분들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기탁하는 이들이 계시고 이들 모두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김 처장은 이렇게 불교라는 큰 자산과 함께 기업 및 동문 네트워크 강화로 발전기금 확보책을 강구하고 있다. 주요 인사를 정기적으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고, 비대면인 점을 감안해 꽃을 선물로 보내는 등 소속감과 유대

감을 증폭시킨다. 그렇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거부감을 갖고 모욕적으로 나오는 이도 없지 않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한다. 진정은 만인에게 통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니 좋은 결실을 얻는다.

“제 꿈이 있다면 로터스관을 건립한 것을 보고 임기를 마쳤으면 하는 것입니다. 로터스관은 컨벤션센터, 박물관, 명상센터, 사무실, 총동창회 등이 들어옵니다. 우리 대학의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발현하는 장소입니다. K-컬처의 세계적인 메카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모교의 정신인 불교와 전통학파인 문학과 연계를 집약시켜 뻗어나가는 우리 대학 랜드마크로 꼽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동문은 물론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이유입니다.”

얼핏 들으면 ‘돈뜰러 다니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설득은 단 몇분만 지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속물적 편견’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친화력과 프로그램화된 접근 방식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킨다. 미국에서 개발된 기금 모금 프로그램 CFRE(국제공인모금전문가)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다루는 스킬이 능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천성적으로 지닌 설득력있는 대화법 때문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부가 쌓였다면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부철학을 제시한다. “하버드 대학도 전문가를 고용해 기금 모금을 하고 있다”는 그는 “미국에선 기금모금운동가는 최고의 박애주의자로 인식하는 면이 있다”고 말한다. 빌게이츠나 오바마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

김 처장은 독실한 불자 집안이다. 의사 출신인 아버지 김영수 씨(작고)가 붓글씨로 필사한 반야심경을 병풍으로 만들어 가보로 갖고 있다. 그런 집안의 내력으로 김 처장 역시 자연스럽게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 스스로 ‘전통적 불교 가문’이라고 자부한다. 동국대 영문과를 지망한 것도 그래서 자연스런 일이었다. 동국대 학사·석사·박사를 마친 뱃속까지 스민 순동국인이다.

‘미국 문화의 마이너리티 담론 읽기’ ‘토니 모리슨 연구’ ‘생성의 도시학’ ‘아름다운 마침표’ 등 의미있는 저서와 번역본을 냈다. 그러는 한편으로 불교여성개발원장, 지혜로운여성이사장, 동국대 CML연구소장, 만해축전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처장의 남편 장세경 박사는 중앙대 병원장을 지낸 의사 겸 교수다. 그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내년에는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에 전념하고자 한다. 동국대가 올해 중앙일보 평가에서 9위를 한 것은 역대 최고 실적이다. 그 상승세를 몰아 윤성이 총장이 11월30일 고별식을 시작하여 내년 5월8일 개교기념일까지 벌이는 캠페인을 성공시키려는 원력이다.

전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은 올해 4월 출범한 건학위원회의 비전과 맥을 같이한다.

이계홍 <국문65·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정시 경쟁률 6대 1

2022년도 신입생 경주캠퍼스 4.61대 1



서울캠퍼스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원서접수는 1월3일 마감 결과 총 1,134명 선발에 6,826명이 지원해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별로는 581명을 모집하는 가군 일반전형에 3,576명이 지원해 6.15대 1의 경쟁률을 나군 일반전형 521명 모집에 2,775명이 지원해 5.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한 다군 일반전형의 AI융합학부(인문/자연)는 32명 모집에 475명이 지원해 14.8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모집단위는 가군 연극학부로 33.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역사교육과 9.42대 1 △사회복지학과 7.80대 1 △통계학과 6.94대 1 순이었다. 나군에서는 △미술학부 조소전공 10.07대 1 △일본학과 7.00대 1 △수학과 6.15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신설 모집단위인 가군 일반 문화재학과와 약학과는 각각 6.90대 1과 6.50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정시모집 가군 체육교육과/연극학부 실기고사는 1월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나군 미술학부는 15일에 실기고사를 실시한다.

경주캠퍼스는 2022학년도 신입생 정

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4.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해 3.89대 1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모집단위는 △한의예과(유형2)로 5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한의예과(유형1)이 26대 1 △의예과 18.9대 1 △간호학과 7.8대 1을 기록했다.

또 △바이오테크놀로지학과 5.2대 1 △일어일문학과 5.1대 1 △스포츠과학전공 5.1대 1 등도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예체능계열 실기고사는 스포츠과학전공과 스포츠의학전공이 1월 11일에 치르며 디자인미술학과는 1월 26일에 실시한다.

5급 행정고시 4명 합격

11월18일 발표된 2021년 5급 행정고시에서 동문 및 재학생 4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는 보호직 2, 교정직 1, 일반행정직 1명이다.

△이찬미(경행14 수료)= 교정직 △김태영(경행14)= 보호직 △최유성(경행11)=보호직 △배성주(경행15 재학)= 일반행정직

115년만에 학위복이 바뀐다

올해 봄학기 학위수여식부터 착용



모교가 1906년 개교 이후 115년 만에 새롭게 디자인된 학위복을 선보인다. 2022년 봄 학위수여식부터 사용할 이 학위복은 한국 패션계 거장으로 꼽히는 이상봉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

기존 학위복은 전국 대학이 공통적으로 적용했던 수도복 형태의 가운데로 모교의 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모교 학위복 리뉴얼 위원회(위원장 성정석)는 모교 만의 학위복 제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리뉴얼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디자인은 한복과 불교의 장삼 등 전통

의상의 특징을 재해석해 깃, 도련, 소매, 주름 등 디자인적 요소로 담아냈다.

모교의 시그니처 컬러인 '동국오렌지'를 메인 색상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여러 겹으로 주름을 잡았다. 알파벳 'D'를 형상화한 소매부리와 가슴에 새긴 로고 등으로 모교의 특색을 녹였다.

이상봉 씨는 "학위복에 주름과 트임을 넣어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을 표현하고, 8개의 주름과 팔각형 학사모로 팔정도라는 의미를 담은 숫자 '8'을 강조했다. 한국적인 복식의 미학을 살리기 위해 소매의 너비를 넓게 하고, 맞깃으로 네크라인에 포인트를 줬다"고 설명했다.

2021 공학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공과대학(학장 홍성조)이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에서 실시한 '2021년 공학교육인증평가'에서 역대 최고수준의 평가결과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대학 공학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평가에서 건설환경공학과와 건축공학전공,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는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과과정 ▲학생 ▲

교수진 ▲교육환경 ▲프로그램 개선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등 총 8개 항목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컴퓨터공학전공은 '2021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소프트웨어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또 컴퓨터공학은 2012년, 2018년 공학교육인증평가에서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2회 연속 차기정기평가(NGR : Next General Review)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주) 열림이텍



전기공사감리 | 전력설비 | 환경관리

대표이사

오 정 은

Mobile. 010 . 9885 . 1674 · E-mail. jayjay010@hanmail.net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109번길 19 (정발산동)
Tel. 031-923-4395 / Fax. 031-908-4395



대표이사 / 감정평가사

정 혁 민

(경찰행정학과 졸업)



www.daegyoapp.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1, 모닝타워 4층 (역삼동)
Tel. 02-6085-6001 / Fax. 02-6085-6002

Mobile. 010 . 4499 . 6466 · E-mail. jhm1592@naver.com

2021년 기부금 입금 100억 돌파

코로나·경제 위축 속에 높은 성과 올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활동과 기부 문화가 꺾여 얼어붙었으나 모교 기부금 입금액(현금+현물)은 100억원을 돌파한 100.5억원을 달성해 85.6억을 기록한 전년 대비 17.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경제 위축 등 어려운 환경에서 국내 Top 명문대학들마저 기부금 모금액이 평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가운데 두드러지는 성과이다.

김애주 대외협력처장은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 9위 등 학교가 발전하는 모습에 동문과 후원자들께서 더욱 발심해 주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작년 4월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건학위원회와 학교, 동문사회가 함께 모교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 결과로 풀이된다.”라며 동문사회와 기부자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 실시



모교가 국내 5위, 세계 100위의 명문 사학을 발원하며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

모교는 11월30일 교내 정각원에서 ‘108배 기부 릴레이 캠페인 입재식’을 봉행했다.

108배 기부 릴레이는 동국대 후원 사이트에 접속해 최소 1만800원 이상을 보시한 후 문자나 SNS로 기부를 이어갈 3명에게 후원 사이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후원에 동참한 사람은 108배를 통해 부처님께 동국 발전의 인드라망이 될 것을 서원한다.

윤성이 총장은 고불문에서 “115년 역

사의 동국대가 올해 국내 9위에 오른 것은 부처님의 가피와 구성원의 눈물겨운 노력 때문임을 잘 안다”며 “지난 4월 출범한 건학위원회가 올해를 제2건학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구국’의 원력을 모은 결과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108배 기부 릴레이 첫 주자로 후원에 동참했으며, 육바라밀 실천의 의미를 담아 교수·직원·학생·동문·스님·불자 등 6명에게 108배 기부 릴레이를 권선했다. 108배 기부 릴레이는 10만명 동참을 목표로 내년 5월8일까지 계속된다.

모교와 총동창회간 동반성장 간담회

취업·창업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10월19일(화) 모교와 동반성장 상생 관계 파트너십 구축 일환으로 기획처와 산학협력단, 창업원 교직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100년 비전체계의 우선 추진과제에 따라 모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직원과 재학생의 당면과제인 취업과 창업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동창회는 모교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동문들과 가교역할을 통해 취업과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업계획

에 포함시켜 변화를 주도해갈 예정이다.

본회와 모교는 앞으로 실무자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박대신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김환배 사업재정위원장, 송일석 상임부회장, 김찬욱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모교에서는 김승용 기획처장(대외혁신지원사업단장), 유광호 기획예산실 실장, 정영식 산학협력단장, 이광근 창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일념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경주캠퍼스는 10월26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일념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학생 20명에게 각 1백만원씩 총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일념장학회는 영축총림 통도사의 수행

가풍을 바로 세운 경봉 큰스님을 찾아 불법을 공부하던 11명의 불자들이 불교인 재양성을 위해 설립했다. 경주캠퍼스에 2009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힐튼경주, 경주캠퍼스에 장학금

우양산업개발(주) 힐튼경주(대표 조영준)는 12월14일 경주캠퍼스 호텔관광경영학부에 장학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힐튼경주는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미래세대 지원프로그램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www.guro.go.kr



구로구

이 성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Tel. (02) 860-2323

Mobile. 010-4107-0945

Fax. (02) 860-3010

E-mail. leesung@guro.go.kr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이 수 호

대표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하용강길 12-131

Mobile. 010 . 5485 . 1968 E-mail. soolee60@hanmail.net

송석환 회장, 중소기업대상 공로상



본 총동창회 25대 회장 송석환(농경64) 동진기업(주) 회장이 12월22일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대상'에서 공로상(산업진흥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송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사업에 매진하면서 동시에 김천고 재단이사장으로 중등 인재 양성과 동국대 총동창회 25대 회장으로 대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신념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여왔다. 동진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로 국내 5개 계열사와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한편 송회장은 '2020년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 모교 봄 학위수여식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진식 동문,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추대



최진식(무역77, 심팩 회장)동문이 12월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11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최 회장은 2012년부터 중견련에 합류하면서 중견기업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2013년 12월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고 2014년 7월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2015년 5월 중견기업연구원 설립 등에 크게 기여했다. 2019년부터는 중견련 수석부회장을 맡아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혁신, 기업 역량 강화 등 중견련 프로젝트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최 회장이 이끄는 심팩은 자동차와 가전 등에 쓰이는 금속을 압축·성형하는 장비인 프레스기계 분야 국내 1위 기업이다. 현재 그룹은 주력회사인 심팩을 중심으로 총 13개의 비상장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심팩홀딩스 △심팩인더스트리 △심팩주물 △심팩산기 △심팩로지스틱스 등이다.

취 임 · 승 진

경찰공제회 사업관리이사



이문수(경행80)동문이 12월22일 경찰공제회 신입 사업관리이사로 선출됐다.

사업관리이사는 경찰공제회에서 사업운영본부와 회원복지본부를 관장하는 임원이다. 사업운영본부는 직영사업과 임대사업, 회원복지본부는 회원공제 업무와 복지 업무를 맡는다. 1988년 간부후보생 36기로 경찰에 입직해 경찰인재개발원장,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



이형렬(농생81)동문이 11월9일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동문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 기획관리부장, 동국의료원 일산병원 행정처장 등 32년간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말 퇴직했다.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



이상로(경행82)동문이 12월24일 한국서부발전 신입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이 감사는 취임사에서 지속 성장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관리체계 구축 등의 경영 여건에서 서부발전의 비전 실현을 위해 ▲안전 ▲감사행정 고도화 ▲청렴·반부패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1989년 경찰간부후보 37기로 대전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 준장 진급

김민결(대학원박사08,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동문이 준장에 진급했다.

금감원 첫 내부 출신 여성 임원



김미영(영문86)동문이 12월22일 금융감독원 기획·경영부원장보로 승진, 금감원 최초의 내부출신 여성 임원이 됐다.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직장생활을 하며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그 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여신금융검사국장, 불법금융대응단 단장 등을 거쳤다. 2020년 1월 불법금융대응단장에 임명된 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주력해왔다.

인천 연수구 시설공단 이사장



정종석(경행86) 동문이 10월5일 인천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ROTC 장교 출신으로 삼성그룹을 거쳐 연수구(을)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다.

서울디지털대 교수 임용



최순호(경행87)동문이 3월1일자로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교수로 임용된다. 최 동문은 1995년 경찰간부 후보로 입직해 해화경

찰서 생활안전과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치고 12월30일 총경으로 명예퇴직했다.

NH투자증권 IB2사업부 부사장



최승호(대학원경제87)동문이 12월22일 NH투자증권 IB2사업부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IB2사업부 대표인 최 동문은 NH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육군 준장 진급



안상욱(경제88) 동문이 최근 국방부 후반기 장성급 장교인사에서 육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학사장교 19기 재정병과로 임관했다.

8군단 예산과장, 50사단 재정참모, 육군본부 예산회계제도장,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장, 육군종합행정학교 재정교 육단장, 1군단, 3군단 재정참모 등을 역임했다.

KBS교향악단 사장 직무대행



남철우(농경89)동문이 재단법인KBS교향악단 사장 직무대행으로 12월16일 부임했다. 남 동문은 2019년부터 교향악단 사무국장

으로 일해 왔다. 1996년 KBS에 입사해 홍보실, 대외정책실, 비서실, 공연미디어연구소 등을 거쳤다. 현재 마포문화재단 이사,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남 동문은 "교향악단 단원 및 직원들과 함께 2022년 시즌을 잘 준비해 관객들의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 상 · 표 창

한국임우회 대통령 표창



전진표(임학60, 전남부지방산림청장)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사)한국임우회가 10월18일 '제20회 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표창

을 받았다.

전국 산림인 연합체인 한국임우회는 산림녹화 완성의 주역으로 월간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발간을 통한 산림정책 홍보, 산림녹화 UNESCO 기록유산 등재 사업 추진, 수목장림 홍보와 실천을 통한 새로운 장례문화 확산과 산림 보전,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산림복지 거버넌스 구축, 국내외와 북한 나무심기 행사 참가, 기술지도 등에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 포교대상 '종정상' 수상



일면스님(승가75,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 12월3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3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종정상을 수상했다.

일면스님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이식 등록기간인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장기 기증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선음악회 개최 등 의료구호 및 사회복지 포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제160회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김인수(농학76, (주)에이엠지코리아 대표이사)동문이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제160회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을 수상했다. 수

상작은 시 '부서진 라일락'이며, 시상식은 12월1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로운C홀에서 있었다.

현재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재학중으로 총학생회장과 동국문학인장려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동국문학인 장려 장학금은 문화예술대학원 재학생 및 지인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기부 형식으로 진행되어 현재 11명이 참여, 1억7천만원을 모금했다.

금융의날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이계문(산공80,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동문이 10월26일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발전 유공자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이 동문은 포용금융 부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금융발전유공 포상은 혁신금융, 저축·투자, 포용금융 등 세 개 부문에서 훈장 2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8명 등 총 176명이 상을 받았다.

본인 또는 주변동문 동정 등 각종 소식을 알려주세요

E-mail : dongguka@naver.com

혜담스님, 높이 5.5m '오백나한도' 첫 공개



혜담스님(불대원01, 계태사 고려불화학술연구소장)이 10월20일부터 11월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千年 고려의 혼을 깨우다. 월제 혜담스님 대고려불화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불교문화의 정수인 다양한 고려 불화는 물론, 5미터가 넘는 오백나한도를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오백나한도는 높이 5.5미터, 폭 2.8미터로 혜담스님이 하루 10시간 이상을 작업했고,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완성한 작품이다. 이와 함께 2년전 공개됐던 5미터 크기의 수월관세음보살도를 비롯 열반상, 지장보살, 양류관음상 등 혜담스님의 고려불화 대표작 40여 점이 전시됐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불화를 국난 극복의 힘으로 삼았던 고려인처럼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는 특별한 의미도 담았다.

이강철 KT 감독, '창단 첫 통합우승' 견인



한국프로야구(KBO) KT 위즈 감독 이강철(회계85) 동문이 2021년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견인했다. KT 위즈의 창단후 첫 통합 우승 쾌거다. 이 감독은 KBO를 대표하는 잠수함 투수로 명성을 떨쳤고, 은퇴 후 코치 생활을 거쳐 2019년부터 KT wiz 감독을 맡아 부임 3년 만에 팀을 리그 정상으로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탁월한 안목으로 새 얼굴을 발굴하고, 과감한 기용으로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이 감독은 선수와 코치에 이어 감독으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하게 된 데 이어 한국시리즈 MVP 출신으로는 첫 우승 감독이라는 영예도 얻었다.

한편 이 감독은 모교 재학시절부터 언더핸드투수로 80년대 중반 동국야구를 수년간 대학 정상으로 올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전시회

불교미술 전공 동문 회원전

불교미술 전공 동문 작가들의 모임인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박경귀)가 '다시 돌아, 봄'이라는 주제로 제29회 회원전을 개최한다. 1월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열리는 이번 회원전은 회화, 조각, 공예 등 작품 60여점을 선보인다.

한국불교미술협회는 1980년 동국대 불교미술 전공 출신의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미술 작가 단체다. 이후 명망 있는 다수의 불교 작가들과 연구자, 불모 스님들이 함께하며 지난 40여 년간 총 28회의 정기전 및 특별전을 열었다. 현재 200여 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각각 전업작가, 미술교육자, 문화재 수리복원 기술자, 불교미술학술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마하 선주선 전초동행전

선주선(불교73, 원광대 명예교수)동문이 12월2일부터 8일까지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마하 선주선 전초동행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선주선 동문의 '나만의 글씨 찾기' 10년 계획인 각 서체 탐색전의 네 번째 이야기로, 한문서예의 오체(전, 예, 해, 행, 초) 중에서 전서와 초서 작품을 한데 묶어 개최됐다.

선 동문은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교수 퇴임 후 해마다 개인전을 개최하는데, 매년 다른 서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그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북경대학 서법예술연구소 객좌교수, 한국서예학회 회장,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및 문화재위원, 한국서예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서예, 서예개론, 서예통론, 반고백선 외 한시집 10권 등이 있다.

회향의 풍경전

홍창룡(불교미술79, 서영화가)동문이 10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 울산 울주군 '샤츠 갤러리'에서 '회향의 풍경전'을 열었다. 전시회에서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의 숨은 멋과 매력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또 전시회 기간중 크고 작은 회화작품과 평면 입체 형태의 작품을 비롯해 작가의 작품 사진을 정리한 화집도 배포됐다.

제34회 동국문학상 시상식

총장·동창회장 첫 참석... 지원책 검토



방법을 알려주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신 회장은 "인간 정서의 원천을 탐구하는 창작활동으로 모교와 동창회를 빛내 달라"면서 김금용(국문74) 신임 동국문학인회

제34회 동국문학상 시상식이 12월17일 총동창회 후원과 동국문학인회 주최로 불교평론 사무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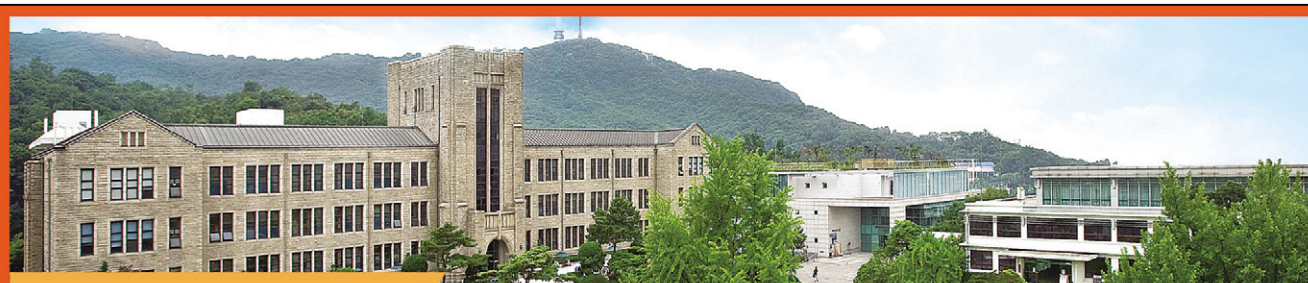
올해 수상자는 △시 김창범(국문67) △산문 김택근(국문75) △소설 故 성낙주(국문76) 동문 등 3명이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의 초청으로 참석한 모교 윤성이 총장은 축사를 통해 "모교에서 배출한 문인들이 우리나라 문단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참석했는데 조촐하게 치러지는 시상식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모교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지낸 문효치(국문62) 시인은 코로나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동국문학상 시상식에 모교 총장과 총동창회장이 참석한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동국문학인회는 모교 출신의 문인들 모임으로 동국문학상을 제정하여 1988년 신경림 시인을 제1회 수상자로 선정한 이래 매년 작품활동이 우수한 모교 문인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학과	세부 전공	캠퍼스		비고
		서울	고양	
행정학과	행정, 정책, 지방자치	○	○	5학기제 야간수업
안보·북한학과	외교·안보, 북한·통일, 방위사업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청소년	○	○	
부동산학과	부동산	○	○	
글로벌무역학과	글로벌무역	○		

- * 수업요일 : 서울캠퍼스 - 월, 목 / 고양캠퍼스 - 화, 수
- * 수업방법 : 대면 수업 및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운영
- * 대학원 간, 캠퍼스 간, 전공 간 교과목 일부 교차 수강 가능
- * 석사학위취득방식 : 논문출제 또는 학점출제

모집방법 서류심사(50%) + 면접심사(50%)

전형일정

원서접수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비고
2022.01.18(화) ~ 02.14(월)	2022.02.18(금) 17:00	2022.02.22(화) 15:00		제출서류 및 전형료 반환 불가
인터넷 접수 전형료 : 6만원	서울캠퍼스 행정대학원 홍페이지	행정대학원 홍페이지	합격자 안내문 참조	

*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 <http://gspsa.dongguk.edu>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2월 학위 취득 예정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출신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제출서류

-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3개월 내 촬영 반영판 사진 1매 부착) 1부
- 학업계획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부
- 대학졸업(예정)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1부
- 대학성적증명서(백분위 점수 기재) 1부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학력조회 동의서(외국대학 학위취득(예정)자에 한함).

원서접수 절차

- 인터넷 원서접수(<http://gspsa.dongguk.edu>) 후 입학원서 출력 및 사진 첨부, 날인
- 학업계획서 다운로드 후 작성 출력
- 입학전형료 납부 : 고지서 상 가상계좌로 입금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입금가능)
-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에 관련 서류 제출 : 입학원서, 학업계획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과 입학을 취소 함
- 2022년 2월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과 입학을 취소 함
- 학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2022.02.24(목)까지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외 대학을 졸업한 지원예정자는 행정대학원 학사운영실 사진 상담후 원서 접수 진행 (전직 대학원 이수 전공 및 학점 인정, 편입학 정원 등)
- 입학 전형 합격 후 합격자 등록기한 내 미등록자는 합격 취소 됨
-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 2022.02.24(목) 18:00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 3층 첨단강의실
- 입학생 수강 신청 : 2022.02.24(목)~27(토)
- 1학기 개강 : 서울캠퍼스 2022.03.03(목) 고양캠퍼스 2022.03.02(수)

문의

전화 : 02-2260-3102 홈페이지 : <http://gspsa.dongguk.edu>



행정대학원

경찰청 고위 간부 인사

연말 경찰청 인사서 동문들 약진

경찰청 전보 및 승진 인사가 지난해 12월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순으로 있었다. 이번 인사에서 우리 동문은 치안감 3명, 경무관 8명이 전보되었다. 승진은 경무관 3명, 총경 11명으로 나타났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 ·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 이상률 경남경찰청장



고기철 (경행82)



박지영 (대학원박사)



이상률 (대학원박사)

12월13일 잇은 치안감 인사에서 △고기철(경행82)동문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으로 전보됐다. 또 △박지영(대학원 박사)동문은 전라남도경찰청장으로 △이상률(대

학원 박사수료)동문은 경상남도경찰청장으로 발령 됐다.

고기철 제주청장은 2017년 12월 경무관으로 승진, 제주경찰청 차장과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경기남부청 2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지영 전남청장은 경찰간부후보 41기로 임용돼 서울양천서장, 전남청 2부장, 전북청 1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률 경남청장은 경찰대(4기)를 졸업하고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 수년간 공공정보 분야 업무를 담당할 경력이 있다.

경무관 승진 5명 (12월24일)

- 12월24일 발표된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는 5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다.
- △ 김병기(경행88)
- △ 마경석(경행89)
- △ 임병숙(역사교육8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
- △ 최보현(법학92, 사법고시 46회)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 박우현(대학원박사) = 광주경찰청 공공안전정보외사과장

경무관 전보 (12월28일)

- △ 김소년(경행84) =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 △ 김주원(경행84) = 전라북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
- △ 오상택(경행85) =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
- △ 김병기(경행88) = 국방대학원 교육
- △ 마경석(경행89)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
- △ 엄성규(경행90) = 경찰관리관
- △ 이준형(대학원박사10)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 △ 김광식(대학원 박사수료) =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총경 승진 11명 (12월30일)

- △ 박미영(경행84) = 서울경찰청 여성보호계장
- △ 손휘택(경행85) = 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 박 웅(경행87) = 광주경찰청 수사2계장
- △ 권용용(경행90)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 김정란(경행90) = 인천경찰청 수사2계장
- △ 구슬환(경행91) = 제주경찰청 홍보계장
- △ 김정완(경행93)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계장
- △ 박정훈(경행94) = 경찰청 기획계장
- △ 박성수(경찰사법대학원 석사) = 서울경찰청 경제상황계장
- △ 이순명(경찰사법대학원 휴학) = 서대문경찰서 수사과장
- △ 김철수(행정대학원) = 경찰청 인권조사계장

남해해양경찰청장 윤성현 · 제주해양경찰청장 김인창

12월15일 발표된 해양경찰청 인사에서 윤성현(대학원 박사14, 치안감)동문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옮겼다.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2003년 해양경찰청 경정으로 임용됐다. 이후 제주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수사정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김인창(법학97, 경무관)동문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이동했다. 제주 출신인 김 청장은 1994년 간부후보로 해경에 입문했다. 이후 제주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수사구조과장, 해양수사부 해양경찰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근안(경행94,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동문은 12월29일 총경으로 승진했다.

운동부, 동계 전지훈련 실시

재학생 · 신입생 팀워크 강화에 중점



안효연 축구부 감독



이건열 야구부 감독



이호근 농구부 감독

이번 훈련에서는 “작년 보다 선수들의 높이(키)가 낮아져 빠른 플레이가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빠른 공격적인 농구를 펼치겠다.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콤비네이션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각종 운동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모교 대학스포츠실(실장 백승규)이 바빠졌다. 축구부(감독 안효연)와 농구부(감독 이호근)가 1월3일부터 동계 전지훈련에 들어갔다. 야구부(감독 이건열)는 1월14일부터 동계 전지훈련이 시작된다. 한편 신년 벽두인 1월7일부터 11일까지 축구부가 ‘2022 제18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에 출전한다.

축구부, 통영 · 부산서 1월3일부터

축구부는 1월3일부터 2월21일까지 50여일간 경남 통영과 부산 기장에서 동계 훈련을 통해 체력 단련과 기량 습득, 재학생과 신입생과의 팀워크를 강화하고 연습경기 등으로 자신감을 키워주게 된다. 매년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만 제도적 문제 등으로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축구부는 올해 성적을 4강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 축구부 재학생 6명이 프로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다. 안 감독은 “올해 다행히 우수한 신입생들이 합류해 내년 2023년에는 기대해볼만하다는 희망을 갖는다”고 전했다. 대학축구연맹에 따르면 현재 대학축구팀은 전국 84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야구부, 1월14일부터 진해에서

1월14일부터 2월24일까지 경남 진해에서 전지훈련하는 야구부는 과거의 야구 명문 전통을 잇겠다는 미션에 부응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각오이다. 이 건열 감독은 “우선 체력 증강은 기본이고 팀워크 강화와 포지션별 개인기 보강 등을 통해 팀 컬러를 일신하겠다”고 말하며 “젊은 선수층이라는 약조건 등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상위권의 면모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한다. 최근 야구부가 두각을 내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은 감독이나 야구를 좋아하는 동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야구부는 지난해 4학년 중 투수 안강현 선수만이 KT위즈에 지명됐다.

농구부, 경주캠퍼스에서 25일간

농구부는 1월3일부터 1월28일까지 25일간 경주캠퍼스 체육관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경주캠퍼스는 체육관부터 시작해 운동장, 웨이트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호근 감독은 “트랙 훈련, 고등학교 팀과의 연습경기도 병행하면서 팀 조직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해 농구부는 대학농구리그 1차대회 준우승, 종별선수권대회 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에따라 4학년 선수 4명 모두가 2021년 KBL 신인 선수 드레프트에 지명되는 쾌거도 이룩했다.

대학스포츠에서 일부 운동부를 제외하고는 절대 강팀이나 약팀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대학의 선수 선발 재량권이 위축된 탓이다. 대학이 자의적으로 전형을 바꿀 수 없도록 체육특기자 모집인원과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면접 · 실기평가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있어 감독들이 원하는 선수 선발이 어렵게 현실이다. 이제는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좋은 성적을 올리고 훌륭한 선수로 키우느냐가 과제가 되고 있다.

84학번, 농구부에 1천만원

84학번동창회가 12월22일 농구부 후원기금으로 1천만원을 윤성이 모교 총장에게 전달했다.

84학번동창회는 2014년에 개최된 84학번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를 계기로 결성된 후, 10년 가까이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해마다 후배들을 위한 십시일반 모금액을 모교에 전달해왔다. 이번에 전달한 1천만원은 84학번 동창회원이기도 한 이호근 농구부 감독(경영 84)의 의견으로 농구부 지원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84학번동창회 한봉교 부회장(경영 84)은 “84학번 동기들과 뜻을 모아 후배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어 보람되고 기쁘다”라며 “모교 위상을 드높일 뛰어난 후배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액을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84학번동창회 한봉교 부회장, 권성연 사무국장(수학교육 84), 강완구 회원(법학84), 이호근 동국대 농구부 감독이 동창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학교 측에서는 윤성이 총장, 김규환 대외협력실장, 백승규 대학스포츠실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바로 잡습니다.

동창회보 257호(2021.10.1.일자) 4면 본회 고문 추대 기사 중 김용정(철학56, 前 모교 부총장) 고문은 이미 타계하였으나 사무처 착오로 잘못 추대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나는 1966년 [현대문학] 7월호로 시단에 첫발을 뒀다. 1965년에 3회 추천제의 1회와 2회를 거친 지 1년만이었다. 그 무렵에는 시인으로 등단하는 길이 쉽지 않았다. 시단으로 입장할 수 있는 출입구 정중앙에는 평균 4, 5년 정도 걸리는 현대문학 3회 추천제가 관문처럼 자리했다. 당시의 현대문학은 신춘문예 당선조차 1회 추천으로 간주할 정도로 위세가 등등했다. 그밖에는 1년에 한번 뽑는 사상계의 신인상을 거치거나 그무렵에 창간된 현대시학, 문학춘추, 시문학과 같은 문예지에 당선되는 길뿐이라서 1년에 10명 내외의 신인이 배출될 정도였다.

동국대 국문과 3학년 재학중에 시인이 되었지만, 시인이 되었다해서 달라질 일은 없었다. 문맹의 홀어머니나 밖으로만 나도는 형들과는 무관한 일이었고, 학교에서도 그 사정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당시의 동국대는 한마디로 문학 대학이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이어서 다니기만 해도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어버린다는 농반진반의 소리가 수긍될 정도였다. 그러니 3학년 등단 따위는 [동대신문] 문화면 마지막 하단에 사진과 함께 3선치 정도 소개되는 기사가 다였다.

한 4년 남짓 재학하는 동안 그곳 남산에서 만났던 학생 중 지금 문단에 활동하는 이름을 꼽아보면 줄잡아 헤아려도 30여 명이 넘는다. 고교 동기로 한 해 먼저 입학해 있던 홍신선과 처음으로 말을 나누게 되었고, 홍신선과 동기인 조정래, 문효치, 강희근, 문윤호 등과 사귀게 되었으며, 뒤에 서라벌예대에서 편집해온 천기철, 명기환, 정원모 등을 만나게 되었다. 같은 학년으로는 신상성, 홍진기, 김종성, 윤영창, 맹운수, 김시중, 정해문 등이 있고, 영문과에 한용환이 있었다. 백숙천은 뒤에 편집하였다. 선배들로는 이우석, 박진환, 박진호, 조운호, 김초혜, 조병무, 윤석호, 김남웅, 정광수 등이 기억에 남고 오학영, 최원식, 홍기삼 등이 복학생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이때 연극영화과에는 <60년대사화집> 동인으로 활동중인 호영송이 있었다. 나보다 늦게 입학한 후배들로는 선원빈, 신용선, 정의홍, 이계홍, 오대환, 김용언, 문인수, 송유하, 홍희표, 김선학, 문정희 등이 있었고,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서는 뒤늦게 국문과에 다니는 마종하를 비롯해 새로운 후배들인 이상문, 이원규, 이명주, 김창범, 최순열 등의 얼굴을 보았으며, 뒤늦게 철학

나의 학창시절

문단 데뷔와 그리운 이름들



박제천 (국어국문64)

과에 다닌다는 황석영을 만나기도 하였다. 나 역시 입학하자마자 우선 동대신문에 습작시를 투고하였고, 그 작품이 바로 발표가 되면서 수많은 문학청년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 결실이 내 곁에 들끓던 술친구들과 결성한 <다다> 동인이다. <다다>는 우리말로는 '모두 다' 를 가리키지만 우리는

트리스탄 자라처럼 루마니아어의 긍정사 '예 예' 에서 시니피에(의미)를 배제한 시니피앙(記表)으로만 사용했다. 아무튼 그무렵 우리는 작품을 모아서 백부 정도를 가형의 초등학교 등사실에서 밀어냈지만, 우리는 그나마 나눠주기도 귀찮아 거의 다들 학교 뒷산에서 불살라 버리고 말았다. 우리들의 <다다> 창간호는 그렇게 우리들 자신에 의해 분서되고 말았다. 그때의 동인 중 선원빈, 정원모, 정의홍, 김정희는 이미 저세상 사람이고, 천기철, 문윤호는 소식이 두절된 상태다. 홍신선, 오대환만이 생존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무렵 우리는 하나둘씩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덩어리, 한패가 되어 강의실보다는 술집을, 교정보다는 남산의 숲속길을 휘몰아쳐 다니기 마련이었다. 나는 거의 일과처럼 술을 마셨다. 친구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읍지로 5가에 집이 있었기에 교통 편리상 하나둘씩 찾아오는 바람에 하루도 술을 거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체질에 술이 잘 받았다. 고교생 때 양주로 시작한 음주 실력인 만큼 소주나 밀주 약주 따위는 웬만큼 마셔도 영향이 없었다. 친구 중에서 특히 선원빈이 술을 좋아해서 서울이 싫증나면 시골로 원정을 다니면서 마시기도 하였다. .

2학년 어느 날, 선원빈이 우이동에 탁족이나 하러 가자며 나를 끌었다. 장미원을 조금 지나면 난계(蘭溪) 오영수(吳永壽) 선생댁이 있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선원빈은 그동안 난계를 사숙하여 자주 찾아뵈던 처지였다. 난계는 백면 서생을 따뜻하고 소탈하게 맞아주셨다. 똥한 성격의 내 마음을 녹여주려는 듯 화제를 끊지 않았고, 당시 고교생인 아들을 불러내 나와 바둑을 대국케 하고는 관전에 열을 올렸다. 이제는 거의 바둑을 두지 않지만, 당시의 내 기력은 1급 상당이었다. 그 아들이 뒷날 천분의 화재(畫才)를 선보이다 요절하고 만 오윤(吳潤)이다. 그 뒤로도 여러 번 난계의 맥을 찾았다. 그때마다 선원빈이 동행하였음은 물론이다. 어느 밤인가, 만돌리를 손수 연주하며 유학생 시절의 연애담을 재미있게 털어놓던 난계의 모습은 지금토록 잊혀지지 않는다. 부자가 모두 유명을 달리했고, 선원빈마저 이세상을 떠나갔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문학아카데미 대표/ 계간 문학과 창작 주간>

신 간 소개

'누구의 흰가슴에 붉은꽃이 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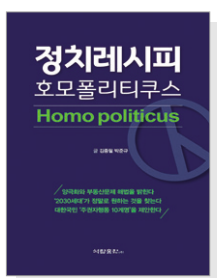
윤재웅(국문81, 모교 국어교 육학과 교수)동문이 '누구의 흰가슴에 붉은꽃이 피는가' 라는 서정주 문학 탄생의 흔적을 꼼꼼히 훑어낸 미당 시문학 로드 에세이집을 발간했다. 한국 현대시의 큰 바다에 도달한 미당 서정주 문학의 발원지는 어디에

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그가 일군 시냇물이며 강물을 거쳐 도저한 큰 바다에 이르는 유장한 발자취를 찾아 나선 저자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저자는 서정주 문학의 인문·지리적 배경뿐만 아니라 시인에게 영향을 미친 정신적·문화적 토양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미당의 상상력과 이야기세계의 매력을 가르쳐준 외할머니와 머슴 박동채, 서운니 누이에서부터 미당 문학의 근본적 자양분이 된 석전 박한영과의 인연, 미당의 시의 샘이 되어준 장모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미당의 융숭 깊은 문학발을 기름지게 일구게 되었는지를 미당 시와 자전산문, 소설 등을 통해 재미와 의미를 담아 펼쳐 보이고 있다.

(깊은 샘 / 1만8천원)

'정치레시피 호모폴리티쿠스'



김종필(정의82, 내일신문 정치팀장)동문이 최근 '정치레시피 호모폴리티쿠스'를 펴냈다.

2022년에는 20년 만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신간 '정치레시피 호모폴리티쿠스'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전장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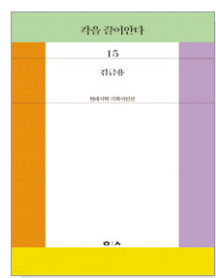
수가 갖춰야 할 리더십을 제안하면서 유권자 중심으로 바뀐 시대의 흐름을 짚어냈다.

정치경제에 강한 <내일신문>의 김종필 정치팀장과 박준규 기자가 손을 잡고 시대정신을 모아냈다. 이들이 잡아낸 유권자의 주문은 '균형'이었다. 빠른 성장 가운데 방치해 왔던 우리 사회의 내부를 찬찬히 살펴보고 훑아 있는 부위들을 맞춤형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저자는 독자와 유권자들에게 한국정치의 혁신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대한국민 '주권자행동 10계명'을 제안한다.

(석탑출판/ 2만원)

시집 '각을 끌어안다'



김금용(국문74, 현대시학 주간) 동문이 현대시학 기획시인 선 15번째 '각을 끌어안다'라는 시집을 펴냈다. 시집은 4부로 나누어 총 60편의 시를 실었다.

시인은 인간의 삶에 대한 탐색을 심미적 언어로 형상화하여 표현 미학의 명징한 수준을 보여

여주고, 독특한 상상력으로 인간 존재와 생명의 위상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시인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각을 지우고 생명 포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상사의 번잡함 속에서도 시인은 생명이 조화를 이룬 원융圓融의 세상을 꿈꾼다. 세상의 역센 힘줄을 다스려 우리에게 "따뜻한 핏줄"을 전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집은 시인이 정성으로 준비한 생명의 밥상이다. 이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생명이 조화를 이룬 우주의 온기를 세상과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시집은 세종우수도서로 선정되었으며, 시집으로는 드물게 3쇄를 찍었다.

(현대시학/1만원)

**삼진
어묵**
SINCE 1953

삼진어묵, 어묵의 문화를 만든다

피란민들의 영양식에서 끼니마다 식탁 위에 올라오는 국민 반찬으로, 그리고 간식의 영역까지. 삼진어묵은 과거에도, 현재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진어묵은 새로운 문화 개척을 통해 어묵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삼진(三進)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에 정진해서 미래로 나아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 | 삼진어묵 부산역광장점



www.외동석재.nasoft.kr



세계명석 경주 남산석 불교조각의 명가



경상북도 석공예부문 최고장인, 사대 22기 한동식

외동석재

경북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610-4 대표전화.(054)777-0404,776-9500~3 FAX.(054)776-9504
웹하드 ID.wdston PW.7770404 무료전화.080-855-9500 E-mail. od0404@hanmail.net

건강과 행복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범명사 회주
사단법인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대한불교조계종군중특별교구장**



미광선일 (인도철학과 73학번)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63-22 T. 032) 577-5108

(주)커뮤니케이션컨설팅앤클리닉

개인과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합니다.



Communication Consulting & Clinic

대표 백승권 (국어국문 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407호
Tel. 02-302-3400



한의마을한의원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장
박 석 만
(한의학과 2012卒)



dongguk UNIVERSITY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韓榮貿易株式會社

Hanyoung Trading Co., Ltd

대표이사 회장 **한 영 휘** (경제학 61卒)

- 경제학과 총동창회 3대 회장
-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기독교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신도연맹 7대 이사장 / 회장
-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제작위원회 상임회장
-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교회 원로장로

www.hanyoungt.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 (한영빌딩)

Tel. (02) 571-1122 Fax. (02) 571-1121
Mobile. 010-3757-2777 E-mail. hany@hanyoungt.com

연안해상 유류운송업의 리더

경진양1호 취항 (축)

열정으로 가득한 도전 에너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주)진양유조선

대표이사 회장 **황 경 환**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5-7번지
(대우증권빌딩 2층)

전화 : (052) 269-3071~2
팩스 : (052) 261-5556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1년 10월 1일 ~ 2022년 1월 3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p>동국장학회 장학금</p>  <p>장경웅 (상학61) 10,000,000</p>	<p>동국장학회 장학금</p>  <p>현응스님 (불교82) 1,000,000</p>	 <p>김환배 (연료공학68) 3,000,000</p>	 <p>고용규 (정치외교70) 1,000,000</p>	 <p>공영대 (화학78) 1,000,000</p>	 <p>주경스님 (불교82) 1,000,000</p>	 <p>황수경 (대학원00) 1,000,000</p>	
	<p>발전기금 (100만원)</p>  <p>유대영 (통계69) 1,000,000</p>	<p>발전기금 (100만원)</p>  <p>홍종표 (행대원94) 1,000,000</p>	<p>고문분담금 (100만원)</p>  <p>김성재 (정치58) 아세아자산관리 회장</p>				
 <p>김진선 (행정71) 前 강원도지사</p>	 <p>라동영 (불교59) 4.19혁명동지회 회장</p>	 <p>보광스님 (불교71) 前 모교 총장</p>	 <p>서영준 (법학64) 동양 회장</p>	 <p>수불스님 (대학원17) 안국선원 선원장</p>	 <p>원용선 (영어영문59) 남양이앤씨 회장</p>	 <p>이상운 (정치55) 삼영기업 회장</p>	 <p>인중식 (경제53) 에스엠엔지니어링 대표이사</p>
 <p>최상철 (경영64) 파인글로벌 대표이사</p>	 <p>홍파스님 (불교63)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p>	<p>부회장회비 (100만원)</p>	 <p>공기태 (화학공학79) 세윅트레이딩 대표이사</p>	 <p>공석돈 (회계79) 백상개발 대표</p>	 <p>권준명 (임학78) 무궁화신탁 대표이사</p>	 <p>김용구 (농업경제70) O.S.E 대표이사</p>	 <p>김재응 (경영65) 우성에이디엠 대표이사</p>
 <p>김정남 (행정72) DB손해보험 부회장</p>	 <p>김종필 (행정82) 내일신문 이사</p>	 <p>김환배 (연료공학68) 풍년 회장</p>	 <p>노항선 (화학공학78) 나우코스 대표이사</p>	 <p>박경기 (한외83) 모교 한외대대학 교수</p>	 <p>서승훈 (정치외교73) 데오테크 대표이사</p>	 <p>서정호 (경영71) 엠베서더호텔그룹 회장</p>	 <p>송일석 (미술76) 케이엔티정보기술 대표이사</p>
 <p>위재춘 (경영64) 여성종합나무 대표</p>	 <p>이계문 (산업공학80) 前 서민금융진흥원장</p>	 <p>조중미 (교육81) 허준마을 작은도서관 관장</p>	 <p>중호스님 (선학81) 모교 기획부총장</p>	 <p>최대식 (회계79) K&C세무회계 대표공인회계사</p>	 <p>최순섭 (수학68) 한국서민연합회 회장</p>	 <p>홍석표 (경영75) 전국퇴직금융인협회 부회장</p>	 <p>황천익 (불교02) 태평양관광호텔 회장</p>

“35만 동문이 힘을 모으면 동국대학교와 동국인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평생회비 50만원

김효중
이지혁 (컴퓨터멀티미디어96)
한도수 (경제58)

부회장 100만원

현각스님 (인도철학78) 50

지도위원 30만원

구자근 (법학86)
권기중 (불교60) 10
김관수 (행정63)
김낙돌 (경제64)
김영화 (경찰행정63)
김일환 (경제64)
김중서 (대학원03)
김형태 (불교61)
노준식 (정치58)
배중대 (철학57)
배충남 (상학62)
변중국 (경제65)
성영석 (경영67)
신쾌호 (법학57)
오원동 (전기공학78)
윤홍섭 (상학65)
이경구 (법학58)
이광호 (행정74)
정인악 (화학55)
정재기 (정치외교64)
지만호 (행대원87)
지성호 (법학09)
최규철 (정치60)
한영휘 (경제57)

상임이사 20만원

김기덕 (법학87)
김도형 (체육교육83)
김동수 (회계87)
김병권 (세무회계00)

김병기
김석희 (법학57)
김영은 (무역85)
김영화 (행정87)
김용표 (불교69)
김윤목 (행대원91)
김중술 (공업경영80)
김학진 (토목공학83)
대웅스님 (불대원99)
류수완 (건축공학82)
박만주 (국사83)
박석만 (한의06)
박성호 (사학82)
변용찬 (경제88)
석법진스님 (행대원88)
성허스님 (불대원99)
신형식 (행정조경86)
오재찬 (회계83)
왕산스님 (불대원95)
우일환 (인도철학87)
유여진 (미술71) 30
이기엽 (국민윤리82)
이동규 (행정88)
이상명 (경대원83)
이석구 (경제86)
이일용 (무역84)
이학송 (불교78)
임식 (체육교육73)
임애란 (가정교육82)
정광시 (경대원80)
정석현 (대학원05)
정우식 (철학88)
정재학 (일어일문88)
정성섭 (전자계산85)
제민스님 (선학01)
조용국 (불대원08)
주석중 (정치외교83)
최응렬 (경찰행정79)
표중섭 (고교미술85)
한규범 (경대원78)
한범식 (행정80)

이사 10만원

고경찬 (경제80)
김경수 (법학05)

김광중 (임학78)
김기수 (국어국문69)
김병수 (회계83)
김억걸 (농학64)
김영생 (영어영문81)
김영석 (법학87)
김용성 (교육93)
김인중 (회계77)
김준한 (회계97)
맹종인 (인도철학92)
박덕진 (법학90)
박동석 (임학87)
박명준 (건축공학71)
박재구 (식품공학76)
박중수 (행대원03)
박홍식 (회계91)
백대운 (전자공학70)
백용운 (수학교육86)
백재욱 (법학92)
성낙영 (물리86)
신남선 (법학84)
신유진 (법학94)
신일섭 (행대원79)
신화섭 (화학84)
안재근 (경영87)
이윤소 (경제65)
염동락 (국어교육75)
윤재웅 (국어국문81)
이갑채 (사과대00)
이경림 (경영91)
이권호 (정치외교81)
이문호 (임학72)
이선기 (법학94)
이영옥 (무역84)
이우은 (행정80)
이장화 (무역84)
이춘자 (경대원95)
임준 (체육교육81)
장승수 (연정대88)
장수정 (임학63)
정동진
조갑환 (수학교육71)
조성일 (체육교육96)
조시승 (경제69)
주상길 (경대원98)
주정호 (회계92)
진명산 (연극영화95)

천대영 (영어영문91)
최수웅 (경제63)
최정욱 (철학83)
최해수 (사과대05)
하해준 (사과대00)
한광태 (경영83)
황규명 (식품공학65)
황기석 (사과대99)

연회비 3만원

강경구 (산기대95)
강기진 (경영93)
강대훈 (행정82)
강민지 (경대원84)
강종석 (수학57)
강태호
고영기 (수학교육05)
곽석윤 (사과대09)
구규욱 (무역77)
권영일 (회계86)
권오진 (회계81)
기우일 (식품공학63)
김교일 (경대원85)
김동진 (행대원79)
김상숙 (대학원69)
김순 (의학87)
김영종 (경제82)
김영진 (사과대02)
김용문 (산업공학83)
김윤상 (정치외교65)
김인범 (법학85)
김재우 (농학83)
김정욱 (행정85)
김중배 (수학교육82)
김주완 (대학원10)
김지연 (대학원09)
김진방 (경제64)
김진희 (공업경영80)
김호성 (경영95)
나기원 (경제64)
남원사 주지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등건성 (건축공학90)
류관주 (농학76)
류중 (법학84)

무이스님 (사회복지15)
박민배 (임학80)
박봉래 (회계84)
박성원 (북한97)
박양수 (임학71)
박영란 (국어교육88)
박영석 (관광경영94)
박용철 (식품공학62)
박원배 (국어국문78)
박재철 (조경94)
박종일 (행대원92)
박진무 (법학95)
박태준 (의학08)
배주환 (전기공학77)
백경진 (경찰행정83)
백대성 (연료공학69)
법련사 주지스님
보림사 주지스님
보우스님
삼정사 주지스님
서동욱 (사과대09)
서문양 (경대원95)
서분도 (국민윤리82)
성문순 (회계84)
성불사 주지스님
세영스님 (불대원97)
소원사 주지스님 30
송병남 (경영72)
신동재 (의학03)
신승길
신유철 (무역96)
신태환 (법학63) 5
심영섭 (경찰행정79)
심원사 주지스님
심재구 (정치외교82)
여래사
여민영 (미래융합17)
오명석 (경대원88)
유연상 (경찰행정85)
윤광영 (건축공학84)
윤병섭 (영어영문56)
윤석재 (법학59)
은혜사 주지스님
의정스님 20
이경성 (연극영화83)

이규성 (정치외교64)
이근수 (북한98)
이금환 (경영87)
이길자
이상봉 (산업공학83)
이수팔 (경영65)
이여진 (화학69)
이재국 (건축공학81)
이재욱 (영어영문83)
이재항 (경제64)
이재혁 (화학공학99)
이종규 (경영81)
이종극 (경영82)
이준복 (회계87)
이지영 (영어영문93)
이찬희 (사회교육74)
이창우 (경제80)
이현희 (의학02)
이혜원 (컴퓨터96)
이호정 (경영64)
장경웅 (상학61)
장철환 (경영00)
전성표 (미래융합17) 20
정기신 (경제87)
정상훈 (법학96)
정성일 (경찰행정89)
정용근 (행정80)
정용일 (법학70)
정성섭 (불대원05)
정창현 (경제83)
정현중 (농림경제67)
조규상 (행대원67)
조덕환 (토목공학75)
조동현 (농림경제64)
조서호 (대학원01) 20
조우현 (법학01)
조천사 주지스님
조태희 (국어국문70)
조한구 (상학67)
조한운 (상학61)
조홍 (경제76)
준산업
지울스님 (불대원01)
지홍스님 (불대원02)
채희석 (법학90)
천관영 (정보관리02)
천왕사 주지스님

천은사
청계암 주지스님
최성식 (회계80)
최승욱 (법학85)
최인택 (건축공학84)
최종열 (토목공학82)
칠불사 주지스님
하지철 (경영98)
하태룡 (체육교육83)
한강택 (경찰행정72)
한영성(태공법호) (승가76)
홍경식 (행정80)
홍남기 (농학87)
홍등호 (회계96)
화염탑사 주지스님
황연수 (화학89)
황재준 (행대원89)

발전기금

동명사 월 2
누계 : 188

동국장학회

이진혁 (화학75) 월 5
누계 : 490
이성훈 (정보97) 월 2
누계 : 84

동국장학위원(신규)

김문선 (전자공학79) 10
윤두옥 (생물59) 10
안중균 (무역86) 5
김금용 (국어국문74) 3
김연수 (상학68) 3
김오석 (무역78) 3
송일석 (미술76) 3
이운영 (농학66) 3
조총미 (교육81) 3
주경스님 (불교82) 3
김인호 (국정대01) 1

우학스님이 설법하는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유튜브 방송
《유튜브불교대학》에 초대합니다.

생활법문, 염불독경 · 경전강의 · 신행상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유튜브불교대학)
또는 (우학스님)을 검색하세요

문의 : 대구큰절 053)474-8228



THE AMBASSADOR

S E O U L

Yours Always
“당신의 모든 순간을 특별한 순간으로”



RE-BORN

THE AMBASSADOR SEOUL - A PULLMAN HOTEL
엠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중구 동호로 287
www.ambatel.com

